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역할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양 승 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자존감과 함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자기애 성향은 강한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735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8세에서 31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자기애성 성격질문지(NPI),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스트레스반응 척도, Diener 등의 삶의 만족 척도, 정서빈도 검사, Lyubomirsky와 Lepper의 주관적 행복 척도이다. 분석 결과, 자기애는 자존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기애는 자존감과 25%이상을 공변하고 있었다.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자기애 하위변인, 즉 특권의식, 권위의식, 우월감, 자기찬미 중에 권력주의나 우월감에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이 없었으며, 특권주의는 분노와 공격성 그리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특권의식과 자기찬미는 주관적 웰빙과도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며, 권위의식과 우월감은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공격성과 분노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기애와 자존감의 특성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애, 자존감, 공격성, 분노, 우울, 주관적 웰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승애,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전화: 02) 920-7728 E-mail: ewha63@sungshin.ac.kr

1980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정신장애진단편람 제 3판(DSM-III)에 자기에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추가하였다.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칭찬받거나 주목받고 싶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욕구, 특권의식과 착취성향, 우월감, 허영심, 자기중심적 사고, 거만함, 내면적 공허감, 과민성, 시기심 등인데, 양가적 자존감과 병리적 자기과시가 핵심 요소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런 병리적 자기에에는 과장된 자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소심하고 불안한 느낌을 경험하며,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는 형태 혹은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자기과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Wink & Gough, 1990).

개인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와 자존감의 공통 특성이다. 그러나 자기에에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다. 일찍이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자기에를 긴장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Lasch, 1979). 경쟁사회에서 자기에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자존감을 유지하게 된다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처가 도가 지나쳐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자기과시나 자기중심적 태도로 나타날 때 문제가 된다. 자기에에서 나타나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내는 특성을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으로 양가적 자존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자기에와 자존감의 공통적인 특성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자기에와 자존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에는 자기에와 관련하여 속칭 ‘공주병’ 혹

은 ‘왕자병’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병리적 자기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병리적인 수준의 자기에로 통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은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자기에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인의 자기에 중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개인의 웰빙을 위협하는 역기능적인 부분을 조명하려고 한다.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고 주관적 웰빙 수준도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다(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특히 병리적 자기에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에에는 공격성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 있다(Bushman & Baumeister, 1998; Raskin & Terry, 1988). 예를 들어,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노 표출을 많이 하거나 적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백승혜, 현명호, 2008).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만(Hart & Joubert, 1996), 기대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대우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부적응적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것도 이미 검증된 바 있다(강은정, 장성숙, 2007). 연구자들은 자기에의 그런 부적응적 양상이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울을 포함하여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심

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일찍이 Freud(1941/1986)도 자기애를 부적응의 요인으로 보았다. 신경분석학 이론인 대상관계 이론도 자기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웰빙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대상관계 관점은 자기애 성향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기는 불안 신호에 대한 자아의 방어적 반응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본다. 그런 대상은 주로 어머니인데 그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지각이 분리불안과 상실감을 자극하고 그런 부정 정서가 모성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착각이 자기애 성향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Kernberg, 1975).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자기애 성향이 강해지면 자기왜곡과 초자아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대상들에게 투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애 성향이 너무 강할 경우 실제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Kohut, 1977). 그러나 자기애의 수준의 강약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정신장애의 진단편람인 DSM의 정의에서의 자기애가 역기능적인 것은 물론 순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 우울, 소진과 같은 변인들과 상관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런 이유로 여러 학자들(Hendin & Chec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이 외현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애의 숨은 특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애의 그런 특성을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라고 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기 과시 혹은 웅대성(grandiosity)과는 다른 취약성(vulnerability) 혹은 민감성(sensitivity)으로 귀결되었다. 웅대한 자기표상과 자기과시나 오만한 태도가 특징인 자기애와는 달리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이 웅대하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자기확신감이 약하여 대인관계나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며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하여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민감한 것이 특징이다(백승혜, 현명호, 2008).

또한 Ashby, Lee 그리고 Duke(1979)는 준거참조전략(criterion keying strategy)으로 제작된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로부터 병리적 자기애 집단을 구분하는 19문항을 추출해 내어 자기애성 성격장애척도(NPDS: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를 개발하였다. 병리적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중에는 MMPI와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두 가지 척도의 문항들까지 포함하여 제작된 것이 있다(Wink & Gough, 1990). 2002년 강선희와 정남운은 기존의 자기애 척도의 문항들과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의 임상적 특징에 근거한 새로운 문항들을 포함시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MMPI에 기초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와 상관이 높았으며, 신경증적 경향성, 우울, 적대감 등과 같은 병리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현적 자기애 척도가 임상적으로 유용할지 몰라도 이 척도로 일반적인 자기애의 역기능적 부분 혹은 순기능적 부

분을 탐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NPDS와 같이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척도와 내현적 자기에 척도는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MMPI와 같은 척도의 문항들을 기초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척도의 문항들의 대다수가 정신병리 그 자체를 묻는 문항들이다. 예를 들어, 강선희와 정남운의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 중에는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상 DSM에서 정의한 것에 기초하여 자기에 성격, 즉 외현으로 나타나는 자기에를 측정하는 척도인 Raskin과 Hall (1979)의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자기에가 정신건강 변인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은 물론 웰빙 변인과의 관계하는지를 탐색하려고 하였다. 김정호(2006)는 동기상태의 이론에 따라 웰빙과 스트레스를 서로 다른 동기의 상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웰빙은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표현되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구분되는데 (Ryan & Deci, 2001),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웰빙이 Diener 등(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은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인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인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런 세 가지 요인에 근거하면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부정 정서는 덜 경험하면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이다.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이 행복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관적 웰빙이 일반적으로 행복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선행연구(김정호 등, 2009;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관적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의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웰빙이 스트레스의 반대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가 정신병리와 관계하는 방식과 긍정심리 변인이 웰빙과 관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적 혹은 질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았다. 자기에가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탐구가 있었지만, 자기에가 웰빙과 같은 긍정심리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병리적 자존감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자존감적인 특성은 자기에의 핵심 속성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차타순, 2002; Emmons, 1984; Kernis & Sun, 1994; Raskin, Novacek, & Hogan, 1991; Rhodewalt & Morf, 1998)에서도 자기에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자기에성 성격자의 자존감은 보통 사람들의 자존감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자기에 성향으로서의 자존감은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다(Raskin, Novacek, & Hogan, 1991). 자기에에 의해 고양된 자존감은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자존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면 자기애는 자존감의 추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자존감을 자기애와 함께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자기애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자존감과 함께 분석하면서 자기애에서 자존감의 요소를 제거하여 자기애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은 정신건강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Frey & Callock, 1989), 자기애는 정신건강과 부적 관계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Cann & Biaggio, 1989; Papps & O'Carroll, 1998). 자기애에 자존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역기능일 수도 있고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Raskin 등(1991)의 주장과는 다르게 Trumpeter, Watson, O'Leary와 Weathington(2008)는 적응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고, 부적응적 자기애는 우울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렇다면 자존감으로 통제했을 때 자기애가 분노, 공격성,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관계하는 방식이 순수하게 자기애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관계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Raskin & Terry, 1988; Watson, 2005)에서 권위 의식, 자기충족감, 우월감 등은 자기애의 적응적 구성요인으로 자기과시, 착취 성향, 특권의식은 부적응적 구성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애 요인들을 자존감으로 통제한 후 그것이 타당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애에서 자존감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을 때 그 요인들 중에 권

위 의식과 우월감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주관적 웰빙과는 정적 관계가 있고, 특권의식과 자기찬미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적 관계를, 주관적 웰빙과는 부적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다.

한편 자기애 성향이 강한테 자존감은 약한 사람들이 병리적인 집단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서수균, 권석만, 2002; 서수균, 2007; Papps & O'carroll, 1998).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애와 자존감 간에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자기애 성향이 강하면서 자존감은 약한 사람들이 실제로 병리적이라면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arry, Frick와 Killian(2003)의 연구에서도 품행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자기애 수준이 높았는데, 그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품행장애 증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수준이 높는데 자존감은 약한 사람들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주관적 웰빙 수준은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기술된 가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자기애 성향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자존감과 비교하며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애와 자존감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자기애 하위변인들이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2(자존감) × 2(자기애)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자기애 성향은 강한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나 주관적 웰빙을 탐색하려고 하였다. 이런 시도로 자기에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파악하고 자존감과 자기가 복합적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두 대학교와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735명(남학생 337명, 여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31세($M=20.72$, $SD=2.42$)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 1학년이 247명(33.6%), 2학년이 287명(39.0%), 3학년이 93명(12.7%), 그리고 4학년이 108명(14.7%)이었다. 이들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34명(45.4%)이었고, 150명(34.0%)이 개신교(기독교), 85명(11.6%)이 천주교, 65명이 불교(8.8%)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명(0.1%)은 그 외의 종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을 하기 전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 의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적률상관분석,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 및 이원변량분석이었다.

조사 도구

자기애. 참여자들의 자기애 성향은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성 성격질문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애 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원래 강제선택형 54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였던 척도를 Raskin과 Terry(1988)가 4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경향이나 특권의식(entitlement), 권위의식(authority), 이기주의를 포함하는 우월감(superiority), 허영과 자기찬미(self-admiration) 등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권의식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속상하다”, 권위의식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싶다”, 우월감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자기 찬미 문항의 예로는 “나는 기회가 되면 나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유임, 2002)에서 위 4요인에 포함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척도가 .94, 특권의식이 .76, 권위의식은 .90, 우월감은 .74, 자기찬미는 .84이었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개인의 자존감, 즉 자기를 존중하는 정도와 자기를 승인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이영자, 1996). 이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을 묻는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을

문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 문항의 응답은 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40까지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값은 .86이었다.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는 고경봉, 박중규 및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 반응을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 7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은 제외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만을 포함시켰다.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중 좌절은 우울과 상관 높은 요인으로 제외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7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험한 것들을 묻는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난 한달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험한 것들을 묻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개발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9~.96을 보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76~.91의 범위 안에 있었고, 척도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97을 나타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세 가지 다른 척도(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Symptom Checklist-90-R)와도 양호한 공준타당도를 보였고,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집단 간의 변별타당도가 유의했다. 본 연구에서도

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는 공격성이 .78, 분노는 .80, 우울은 .85이었고, 세 가지 요인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90이었다

부정/긍정 정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정서 빈도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지난 1개월 동안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1 = 전혀 없었다 ~ 7 = 항상 그랬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피검자는 각각 네 가지의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를 평정하는데 부정 정서는 공포, 화남, 슬픔 및 죄의식이고 긍정 정서는 애정, 기쁨, 만족감 및 자부심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부정 정서 .72, 긍정 정서 .78이었다.

삶의 만족.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수준은 Diener 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선행연구자들(조명한, 차경호, 1998)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김정호(2007)가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과 같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1 = 매우 반대한다 ~ 7 = 매우 찬성한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수준은 .85였다.

주관적 행복. 참여자들의 주관적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

(2007)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피검자 자신의 행복 상태와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4문항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검자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혹은 덜 행복한지 등을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수준은 .77이었다.

결 과

자기에 성향 및 자존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자기에 성향의 하위변인들이 공격성, 분노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및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자존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와 비교하며 살펴보았다(표 1 참고). 참고로 자기에 성향은 자존감과 25% 이상을 공변하고 있었다($r=.52, p<.001$). 자기에 성향 하위변인 중에 권위의식이 자존감과 가장 많은 부분을 공변하고 있었고, 특

권의식이 공변하는 부분이 가장 적었다, $r=.27, p<.001$.

자존감은 공격성과 부적 관계가 있었지만 ($r=-.26, p<.001$), 자기에는 공격성과 관계가 없었다. 다만, 특권의식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특권의식에 공격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존감은 분노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고 ($r=-.17, p<.001$), 자기에 하위변인 중에 권위의식 ($r=-.11, p<.01$)과 우월감($r=-.10, p<.01$)이 분노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존감은 다른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보다 우울과 많은 부분을 공변하고 있었다, $r=-.41, p<.001$.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자기에 애와 그 하위변인들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 특권의식은 우울과 공변하는 부분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자존감은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존감은 부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긍정정서나 삶의 만족 및 주관적 행복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자존감은 주관적 행복과 46%가량 공변하고 있었다, $r=.68, p<.001$.

표 1. 자기에 및 자존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및 주관적 웰빙의 상관행렬(N=735)

변인	특권의식	권위의식	우월감	자기찬미	자기에	자존감	M(SD)
자존감	.27***	.56***	.51***	.42***	.52***		
공격성	.09*	-.04	-.05	.01	-.01	-.26***	6.16(2.88)
분노	.06	-.11**	-.10**	-.03	-.02	-.17***	13.33(4.97)
우울	-.09*	-.32***	-.26***	-.21***	-.26***	-.41***	17.69(6.36)
부정정서	.05	-.20***	-.15***	-.10**	-.14***	-.44***	12.68(5.12)
긍정정서	.24***	.41***	.36***	.31***	.39***	.45***	18.32(5.51)
삶의 만족	.13***	.36***	.32***	.22**	.31***	.47***	19.02(5.68)
주관적 행복	.22***	.52***	.49***	.33***	.46***	.68***	19.59(4.64)
M(SD)	12.34(3.29)	33.18(8.57)	15.46(3.77)	28.11(7.21)	89.09(20.45)	30.12(5.14)	

* $p<.05$, ** $p<.01$, *** $p<.001$.

자기애도 부정정서와 부적 상관을, 긍정정서나 삶의 만족 및 주관적 행복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애의 하위변인인 특권의식은 부정정서와 상관이 없었다. 상대적으로 자기애는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병리적 요소보다는 긍정 심리변인인 긍정정서($r=.39, p<.001$), 삶의 만족($r=.31, p<.001$) 및 주관적 행복($r=.46, p<.001$)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기애도 주관적 행복과 21% 가량 공변하고 있었다.

자기애에 자존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기애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목적을 위해 자기애는 하위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은 투입된 변인들 중에 준거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 단계적으로 모형을 제시하는데, 예언변인이 복수일 경우 더 유의한 예언변인이 다른 예언변인과 교집합으로 준거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모두 가져가고 그 외의 예언변인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표 2에서 보듯이 자존감은 공격성의 변량을

6.8%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애의 하위변인 중에 특권의식만이 공격성의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는데, 자존감에 더해 공격성을 추가적으로 2.7%정도 더 설명하고 있었다, $\beta=.17, p<.001$.

다른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변인인 분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상관분석에서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이 분노와 상관이 있었으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이 자존감 특성의 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관분석에서 특권의식은 분노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에 더해 분노를 3.0%가량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의식에서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자존감으로 보정되면 분노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eta=.18, p<.001$). 또한 그것이 정적 관계로 나타나 특권의식에 역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형태의 관계는 우울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권위의식, 우월감, 자기찬미가 우울과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그런 변인들이 자존감에 더해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우울에 대

표 2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735)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t	R^2	ΔR^2
공격성	자존감	-.26	-7.32***	.068	-
	특권의식	.17	4.63***	.095	.027
분노	자존감	-.39	-11.37***	.150	-
	특권의식	.18	5.16***	.180	.030
우울	자존감	-.65	-22.05***	.396	-
	특권의식	.09	3.10**	.404	.007

** $p<.01$, *** $p<.001$.

한 그런 변인들의 영향력은 자존감의 특성이 그것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관분석에서 특권의식은 우울과 부적으로 관계가 있어 특권의식이 우울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하면 특권의식은 개인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beta=.09, p<.01$.

표 3에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정정서는 자존감이 19.3%정도 설명하고 있었으며($\beta=-.44, p<.001$), 특권의식은 추가적으로 2.8%를 설명하였다, $\beta=.18, p<.01$. 상관분석에서 부정정서와 특권의식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했을 때 특권의식은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권위의식은 자존감이나 특권의식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beta=-.13, p<.05$. 이는 권위의식에 부정정서를 느끼지 않게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웰빙 변인, 즉 긍정심리 변인인 긍정정서, 삶의 만족 그리고 주관적 행복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존감은 이런 웰빙 변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했을 때 자기에 하위변인 중에 권위의식이 이 세 가지 웰빙 변인, 즉 긍정정서($\beta=.23, p<.001$), 삶의 만족($\beta=.15, p<.001$) 및 주관적 행복($\beta=.21, p<.001$)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의식은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하고도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권위의식은 긍정정서, 삶의 만족 및 주관적 행복과 같은 웰빙 변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권의식은 삶의 만족($\beta=-.15, p<.001$)과 주관

표 3.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에와 자존감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735)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t	R ²	ΔR^2
부정정서	자존감	-.44	-13.29***	.193	-
	특권의식	.18	5.26**	.221	.028
	권위의식	-.13	-2.47*	.227	.006
긍정정서	자존감	.45	13.55***	.200	-
	권위의식	.23	5.91***	.237	.037
삶의 만족	자존감	.47	14.51***	.222	-
	권위의식	.15	3.76***	.236	.014
	특권의식	-.15	-3.31***	.246	.010
주관적 행복	자존감	.68	24.93***	.459	-
	권위의식	.21	6.52***	.488	.029
	특권의식	-.14	-3.93***	.499	.011
	우월감	.18	4.01***	.510	.011
	자기찬미	-.09	-2.10*	.513	.003

* $p<.05$, ** $p<.01$, *** $p<.001$.

적 행복($\beta=-.14, p<.001$)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우울감($\beta=.18, p<.001$)과 자기찬미($\beta=-.09, p<.05$)까지 주관적 행복을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에는 네 가지 자기애 하위변인 모두 자존감에 더해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이나 권위의식, 그리고 우울감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자기찬미는 특권의식처럼 주관적 행복과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애의 부정적 면은 특권의식과 자기찬미의 부분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기애 수준은 높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주관적 웰빙

자기애 수준이 높는데 자존감 수준은 낮은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이원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에서도 앞선 분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존감은 공격성, 분노 및 우울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자기애에는 공격성($F(1, 731)=8.30, p<.01$)과 분노($F(1, 731)=4.53, p<.05$)에는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으나 우울에는 그렇지 않았다, $F(1, 731)=2.74, n.s.$ 한편, 공격성, 분노,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제시된 그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과 자기애가 모두 약한 사람들보다 자존감은 약한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공격성, 분노 그리고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과 자기애가 모두 약한 사람들보다도 자존감 수준은 낮은데 자기애는 강한 사람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 결과, 자존감이 약한 대학생들 중에 자기애 수준에 따라 공격성($F(1, 359)=12.85, p<.001$)과 분노($F(1, 359)=14.7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존감이 강한 대학생들 사이에

표 4. 자기애와 자존감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인		약한 자존감	강한 자존감
		M(SD)	M(SD)
약한 자기애 성향	공격성	n = 250 6.45(2.71)	n = 121 5.51(2.13)
	분노	14.21(4.65)	12.17(4.24)
	우울	20.88(5.89)	15.77(4.50)
강한 자기애 성향	공격성	n = 111 7.75(4.04)	n = 253 5.48(2.41)
	분노	16.26(4.77)	11.71(4.91)
	우울	21.04(6.13)	14.46(4.69)

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존감이 강한 대학생들 중에 자기에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F(1, 373)=14.94,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자존감이 약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에와 자존감의 이원변량분석에서도 자존감은 부정정서, 긍정정서, 삶의 만족 그리고 주관적 행복 모두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상관계수나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존감과의 이원변량분석에서 부정정서에

는 자기에의 주효과가 없었지만, 긍정정서($F(1, 731)=16.99, p<.001$), 삶의 만족($F(1, 731)=4.23, p<.05$), 주관적 행복($F(1, 731)=18.81, p<.001$)에는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한편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와는 달리 주관적 웰빙 변인들에서는 자존감과 자기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비교하며 자기에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나 주관적 웰빙과 어떤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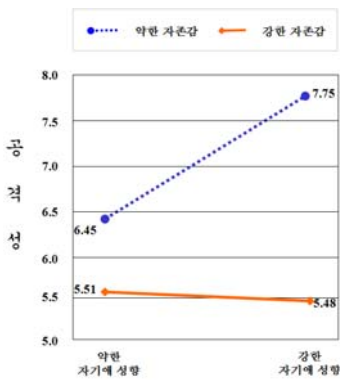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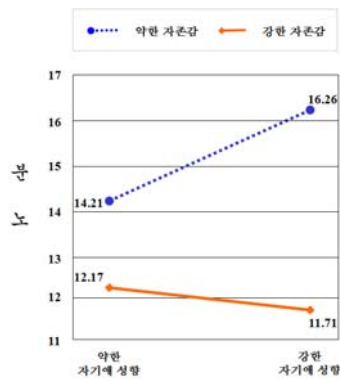


그림 2. 분노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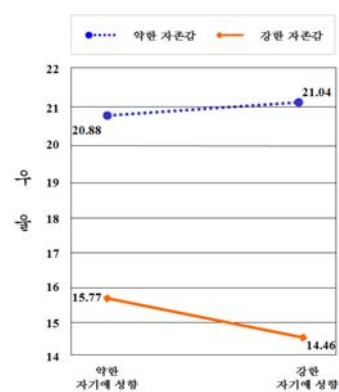


그림 3. 우울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의 상호작용

표 5. 자기에와 자존감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평균 및 표준편차

중속변인	자기에와 자존감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약한 자존감 <i>M(SD)</i>	강한 자존감 <i>M(SD)</i>	
약한 자기에 성향	부정정서	14.56(4.95)	10.46(4.43)
	긍정정서	15.83(5.03)	18.98(4.71)
	삶의 만족	16.47(5.21)	20.61(4.80)
	주관적 행복	16.53(4.01)	21.23(3.36)
강한 자기에 성향	부정정서	15.40(5.33)	10.69(4.15)
	긍정정서	17.15(5.18)	20.97(5.20)
	삶의 만족	17.21(4.95)	21.26(5.27)
	주관적 행복	17.70(3.87)	22.65(3.66)

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에 앞서 자기애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Kernis & Sun, 1994; Rhodewalt & Morf, 1998)에서처럼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애에는 자존감적 특성이 25%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자기애에 자존감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핵심 요소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고, 자존감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자기애 성향의 1/4이상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역으로 자기애가 자존감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기애의 75% 정도가 자존감과 다른 특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애의 구성요인 중 권위의식이 자존감과 가장 많은 부분을 공변하고 특권의식이 공변하는 부분이 가장 적게 나타난 상관분석 결과로도 자기애 중에 권위의식은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순기능을 특권의식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자존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부적상관이 있었는데, 공격성이나 분노 같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 반응보다는 기분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우울과 더 공변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자존감은 웰빙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주관적 행복 변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관건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애도 병리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보다는 긍정심리 변인인 주관적 웰빙과 더 많은 부분을 공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측면

에서는 자기애가 개인의 웰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애의 이런 순기능의 많은 부분은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의 특성일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감정 상태나 인지적 추상적 개념보다는 복잡한 인지적 요인과 미분화된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Pelham & Swan, 1989).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긍정 정서와 심리적 만족감을 가진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Erikson, 1963). 또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더 잘 기능한다는 주장도 있다(Chikering, 1969). 실제로 낮은 자존감 수준이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로도 검증되었다(Frey & Callock, 1989).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공격성 변량을 6.8%가량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낮은 자존감 수준이 공격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Toch, 1969; Long, 1990)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존감이 실제 공격행동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Rigby & Slee, 1993; Salmivalli, 2001). 본 연구에서는 공격행동이 아닌 공격 성향을 변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공격성과는 관계가 있지만 실제 공격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 관계에 조절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연구들에서 이런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 중 특권의식 요인은 공격성과 분노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상관분석에서 특권의식이 분노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회귀분석에서 자존감으로 통제하였을 때 분노가 특권의식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권 의식에도 자존감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통제하면 특권의식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적으로 관계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한편, 이미 몇몇의 선행연구(Barry, Frick, Adler, & Grafeman, 2007; Cann & Biaggio, 1989; Papps & O'Carroll, 1998)에서는 자기에 성향이 강하면 공격성이 강하고 분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에 하위변인 중에 특권의식이 공격성이나 분노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인 관계에서 특권의식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그런 반응은 자신이 가진 특권의식에 더 상반되기 때문에 공격 성향과 분노를 자극할 수도 있다.

Raskin과 Terry(1988) 그리고 Watson(2005)은 자기에의 권위의식과 우월감이 적응적 구성요인이고 특권의식은 부적응적 구성요인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자존감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이 분노와 부적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나 자존감과 같이 투입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에 포함되어 있는 자존감 특성 때문이다. 이는 자존감과 자기에가 우울과 관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더 복잡해진다. 그들이 자기에의 부적응적 구성요인으로 결론지은 특권의식은 상관관계에서 우울과 부적관계를 보였으나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자존감으로 통제하면 특권의식은 개인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변인이었다.

또한 상관분석에서는 권위의식, 우월감, 자기찬

미가 우울과 부적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지만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자존감에 더해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Raskin과 Terry(1988) 그리고 Watson(2005)이 적응적 자기에 요인이라고 설명했던 권위의식과 우월감에서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추가적 순기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는 다른 자기에 요인들과는 달리 특권의식과 권력욕구가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특권의식이나 권력욕구에서 자기에의 순기능을 통제하였을 때 신경증적 경향성과 공변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자기에의 순기능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존감의 순기능일 가능성이 크고, 자존감을 제외한 자기에 그 자체에서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에 하위변인들은 자존감과 공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주관적 웰빙에 작용하고 있었다.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하면 특권의식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뿐 아니라 주관적 웰빙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존감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자기찬미는 주관적 행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기에 중에 권위주의와 우월감은 자존감의 특성을 제외하고도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 일찍이 Adler(1964)는 개인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강조한 바 있는데, 자존감 특성이 포함된 우월감이 개인의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였다. 권위의식과 우월감이 적응적 구성요인이고 특권의식은 부적응적 구성요인이라는 주장은 자존감으로 통제하여 분석한 자기에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통하여 더 지지되는 듯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결론내리자면 연구자들이 가정했던 것처럼 자존감으로 통제하였을 때는 자기애 요인 중에 특권의식과 자기찬미에는 역기능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이 자존감으로 통제하여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관적 웰빙 변인과의 부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권위의식이나 우월감에는 병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의 효과로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분노, 공격성과 우울에서 자존감과 자기애의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자기애 수준은 높으면서 자존감 수준은 낮은 사람들이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격성과 분노 수준이 높았다. 이는 이들이 임상적으로 주목해야 할 병리적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서수균과 권석만의 연구(2002)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특별히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수균(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분노경험도 많이 하고 분노표출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근거로 자기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상관계 이론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서 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는 달리 주관적 웰빙에서는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자존감 수준은 낮는데 자기애만 강하면 정신병리적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웰빙 즉 긍정심리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는 상관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스트레스 반응, 즉 병리적 특성보다는 주관적 웰빙 변인과 공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을 상·하위 25%나 10%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던 그 차이가 더 컸을 수 있다. 하지만 자존감과 자기애의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애 성향은 매우 강하지만 자존감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통계적으로 어렵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Papps & O'carroll, 1998). 그런 가운데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에서 자존감과 자기애의 상호작용을 발견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기애와 자존감의 역할을 탐구하였는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자기애 및 자존감이 정신건강이나 웰빙 변인 간의 관계에 다른 변인의 조절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추후에 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 성향과 자존감 수준에 따라 나눈 네 집단을 비교한 Papps와 O'carroll(1998)도 이런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자기애는 강한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 참여자 735명 중에 111명이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로 구분되어

이원변량분석으로 하는데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자기에에 포함된 자존감의 특성과 자존감 요소를 제외한 자기에의 요인들의 순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역할을 검증한 것, 그리고 자기에 성향이 강하지만 자존감은 약한 병리적 집단을 탐구한 것은 추후연구와 임상가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발달과정과 자기에 성향이 강하지만 자존감은 약한 사람들의 특성을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0.
- 강유임(2002). 청소년의 자기에와 대인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장성숙(2007). 자기에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913-932.
-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2000).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 707-719.
- 김정호(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453-484.
- 김정호(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건,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87-205.
- 백승혜, 현명호(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1001-1017.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69-186.
- 서수균(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719-734.
- 서수균, 권석만(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809-826.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남운(2001). 자기에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221-237.
- 조명한, 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차타순(2002). 자기에적 성격성향자의 자존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7, 95-114.
- Adler, A. (1964).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shby, H. U., Lee, R. R., & Duke, E. H.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MMPI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Y: New York.
- Barry, C. T., Frick, P. J., & Killian, A. L. (2003). The relation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to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 preliminary

- investig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139-52.
- Barry, C. T., Frick, P. J., Adler, K. K., & Grafeman, S. J. (2007). The predictive utility of narcissism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 for a distinction between adaptive and maladaptive narcissis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y*, 16, 508-521.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Chickering, A. W. (1969).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CA: Josey-Ba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ud, S. (1941/1986).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A. P. Morrison (Ed.),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pp. 17-3).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ey, D. & Callock, C. J. (1989). *Enhancing self-esteem*. Bristol, PA: Accelerated Development.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9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204-210.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Long, D. F.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ew York: Free Pres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elham, B. W. & Swann, W. B., Jr.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153-1159.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

- 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8).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igby, K., & Slee, P.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33-4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Psychology*, *52*, 141-166.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Toch, H. (1969). *Violent men*. Chicago: Aldine.
- Trumpeter, N.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Watson, P. J. (2005). *Complexity of narcissism and a continuum of self-esteem regulation*. In M. Maj, H. S. Akisal, J. E. Mezzich, & A. Okasha (Eds.), *Personality disorders* (pp. 336-338). New York: Wiley.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97.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3.

원고접수일: 2010년 10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결정일: 2010년 12월 7일

The Role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Psychological Stresses and Subjective Well-being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Seung-Ae Y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narcissism are related to psychological stresses and subjective well-being with self-esteem, and illustr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high degree of narcissism and low self-esteem. The participants were 735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ges ranged from 18 to 31.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osenberg's Self-Esteem Scale, Stress Response Inventory,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motion Frequency Test, and Subjective Happiness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narcissistic tra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self-esteem shared over than 25% variance. If they were adjusted by self-esteem in regression analyses, feeling of authority and superiority among factors of narcissism had no buffering effects for psychological stresses, and need for entitlement showed possible negative influences for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stresses such as aggression, anger, and depression. And need for entitlement and self-admiration negatively were cor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and feeling of authority and superiority positively were correlated to subjective well-being, as they were adjusted by self-esteem. This study revealed that especially people with high degree of narcissism and low self-esteem showed high degree of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stresses such as aggressiveness and anger. It was discussed roles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with previous studies.

Keywords: Narcissism, Self-Esteem, Aggressiveness, Anger,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